

1 최저임금 8590원 2 주52시간 확대 3 부부 동시 육아휴직

올 달라지는 노동시장

- 4 연간 최대 10일 가족돌봄 휴가
- 5 건강보험료율 6.67%로 인상

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 올해 노동시장에도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추려 2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8350원에서 2.87% 오른 8590원이 된다. 한 달 209시간 근무할 경우 월 급여는 174만5150원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5만160원 인상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시행된다. 2018년 7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된 이후 올해

<2020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

- 1 최저임금 8,590원
- 2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50~299인 사업장)
- 3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설
- 4 가족 돌봄 휴가 신설
- 5 가족 돌봄 근로시간단축 단계별 시행
- 6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7 청년저축계좌 제도 신설
- 8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 9 4대 보험료율 인상
- 10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 강화

[자료=인크루트, 알바콜]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다만 올해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되는 등

보완대책이 시행된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작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실시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된 데 이어 오는 2월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복직 후 아빠가 사용하는 식으로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 시행된다. 올해 공공기관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0.21% 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포인트 오른다.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중도인출 요건이 올해 4월30일부터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기금까지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이 허용됐다.

직업훈련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발급돼 왔던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돼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된다. 1~3년이던 유효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됐고 200~300만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500만원까지 인상됐다.

또 근로빈곤층 청년(만15~30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부 '창업국가 조성'에 1.5조 지원

전년대비 예산 30% 증가 '역대최대' 혁신창업 패키지 등 21개 사업 도입

정부가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전년대비 30% 증가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역대 최대 지원 사업을 펼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 패키지사업', 농업진흥청의 '농업실용화 기술 R&D(연구·개발)지원사업', 법무부의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 등 신규사업도 21개 도입된다.

중기부는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 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4517억원이 지원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336억원 증가한 수치로 중기부 등 13개 부처에서 예산을 3354억원 늘였다.

본 예산을 기준으로 2019년 7796억원 규모였던 창업지원사업은 2019년 1조1181억원, 2020년 1조451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창업 및 스타트업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2019년보다 2635억원 늘어난 1조2611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체 지원의 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중기부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152억원에서 498억원으로 증가한 예산을 배정했다.

부처별 지원 규모는 창업 및 스타트업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19년 9976억원에서 '20년 1조2611억원으로 2635억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년 152억원에서 '20년 49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 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50.4%), 연구개발(35.3%), 시설·공간제공(8.7%), 창업교육(3.7%), 멘토링(1.5%) 순으로 예산이 배정됐다. 이중 창업사업화 지원은 2019년 5131억원에서 2020년 7315억원으로 증가해 중점 지원된다.

아울러 2020년에는 21개의 창업지원 사업이 신설 또는 추가됐다. ▲중기부의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혁신창업 패키지사업'(450억원) ▲중기부의 '글로벌창업사관학교'(108억원) ▲중기부의 '로컬 크리에이터 바꾸쳐 지원'(44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산업 기반 연구지원'(20억원)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 투자 인프라 연계형 R&D'(22억원) ▲농업진흥청의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사업'(116억원) ▲법무부의 '창업이민인재양성 프로그램'(8억원) 등이다.

또한, 중기부는 예비창업패키지에서 나이 제한을 없앴다. 기존에 예비창업패키지는 수혜 대상은 만 39세 이하였다. 이는 중장년 창업 수요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서 316억원을 확보해 40대 이상 창업 지원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중기부 관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올해는 예비창업패키지를 이원화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나이제한을 풀고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지원받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배한남 기자 ericabae1683@

비싼 5G 요금, 올엔 착해질까

이동통신 3사, 5G 요금제에 8만원대 '무제한 데이터' 적용 중저가 요금제 보편화엔 '난색'

2020년에는 5세대(5G) 이동통신 대중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했고, 국내 5G 가입자는 500만명이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5G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고가인 5G 요금제 또한 대중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일제히 8만원대 5G 요금제에 '무제한 데이터' 혜택을 적용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지난 연말까지 프로모션이던 혜택을 정규 요금제로 확정하면서다. KT는 가장 먼저 8만원대 데이터 완

전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했다.

우선 SK텔레콤은 각각 월 8만9000원(이하 부가세 포함), 12만5000원에 완전 무제한 데이터이던 '5GX프라임'·'5GX플래티넘' 요금제를 정규 혜택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5GX프라임 월 이용료는 기존 9만5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6000원 인하됐다. 이와 함께 휴대폰 보험 무료·할인, 음원·미디어 플랫폼 '플로'·'웨이브' 무료 제공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SK텔레콤 측은 "월 7만5000원에 200GB를 제공하는 '5GX스탠드' 요금제는 월 7만9000원에 150GB를 제공하는 LTE 'T플랜 스페셜'과 비교시 1000원당 데이터 제공량이 약 40% 많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4월 프로모션으로 내놓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서울 강남구 SME타운 '케이팝 스퀘어' 외벽에 설치된 디지털 사인지에 5G 단말기 광고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규 요금제로 전환했다. LG유플러스는 월 8만5000원부터 11만5000원까지 총 4종의 요금제에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적용했다.

KT는 업계 최초로 8만원대에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KT 5G 슈퍼플랜'을 선제적으로 내놓았고, 올해도 이를 유지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인 슈퍼플랜 3종은 월 8만원대부터 13만원까지 마련됐다. /김나인 기자 silkni@



목념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훈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 후 목념하고 있다. /뉴시스

병무청,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 시행

병무청은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것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합치 결정했기 때문이다. 도입될 대체복무제도는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했다.

대체역은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

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해야 한다.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며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절차 및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내용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편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방위사업청,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 신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공정화 및 하도급 업체 권리보호에 뜻을 함께 했다.

방사청은 2일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신설하고 새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산업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업체의 권리보호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배

포(46종, '19.12. 기준)해 협력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전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가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신설되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금지 및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하도급 업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문형철 기자